

사회계층에 대한 재조명: 심리학에서 개념화 및 측정을 중심으로

변 상 우[†]

가톨릭대학교

사회계층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으로 인해 서구 심리학에서는 사회계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심리학계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사회계층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관심은 미비하였으며, 그 개념이나 측정 또한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 연구의 중요성과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사회계층이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물음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사회계층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계층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서로 비교하였다. 또한 사회계층 측정 방식을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사회계층으로 나누어 각 접근의 특성과 주요 사용 지표를 개관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심리학에서 발표된 사회계층을 다룬 연구들을 수집, 검토함으로써 현재 사회계층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대상 논문 총 23편 중 65.2%가 객관적 사회계층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주로 사용된 지표는 학력, 소득, 직업 순이었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사용된 연구는 7편으로 모두 사회계층 정체성 측정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사회계층을 언급하는 용어로는 총 7가지로 밝혀졌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계층 변인에 대한 보다 직접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사회계층'을 사용함으로써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사회계층 측정에 있어 유의점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사회계층,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계층의 측정, 객관적 사회계층, 주관적 사회계층

[†] 교신저자 : 변상우, 가톨릭대학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니콜스관 353
Tel: 010-5650-8922, E-mail: spiritoso@daum.net

현대사회는 계급 없는 사회(classless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즉, 카스트나 과거 신분제 체제와는 달리 누구나 공평하게 자원과 기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성공과 성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능력주의(meritocracy)와 신자유주의에 편입되어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개인과 사회에 끊임없이 전파해왔다. 하지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N포 세대’, ‘노오력’ 등과 같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신조어들이 각광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신조어들이 시대상과 세태를 한 단어로 함축하고 있어 강력한 사회적 파급력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키워드가 요즘 청년들의 “그 유약하고 절없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고도 하며(이병태, 2017), 사회에 패배주의나 무기력감을 조장한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계층화 현상을 넘어 신(新)계급사회를 언급하는 이런 유행어들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실패와 좌절에 대한 분풀이와 책임 전가의 산물인가? 이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 계층화 현상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통해, 우리 사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 소득분배 맥락에서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위 10%는 마이너스 자산, 즉 자산보다 빚이 큰 상태이다(통계청, 2016; 통계청, 2017). 소득격차를 본다면 1분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003년 123만원에서 2016년 143만원으로 20만원 증가한 반면, 5분위는 2003년 646만원에서 2016년 825만원으로 179만원 증가하여 같은 기간 실질 소득의 증가분이 1분위의 8배에 이른다(천소라, 김성태, 2017). 또한, 소득수준과 대학진학율의 경우, 1분위 학생(30.4%)보다 5분위 학생(68.7%)이 2배가량 더 많이 진학하며, 수능 1, 2등급의 비율은 1분위 학생(2.3%)보다 5분위 학생(11%)이 5배가량 더 많다(최필선, 민인식, 2015). 특히, 수능성적 1, 2등급 중 부모가 고졸 미만인 경우 0.8%에 불과하지만, 부모가 대졸 이상인 경우는 20.8%에 달하였다. 서울권 주요 의과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10분위 자녀 469명이 의대에 진학한 반면, 기초생활수급권자~2분위 자녀는 평균 61명만이 의대생이 되고 있다. 즉 최상위 소득층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의 의대 진학 비율이 약 8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한국장학재단, 2017: 이도경, 구자창, 안규영, 2017에서 재인용).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하면 된다’는 믿음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리고 있다. 어느

표 1.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통계청 2016, 2017)

(단위 : %)

구 분	순자산 점유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5년	-0.3	0.8	2.0	3.4	4.9	6.7	9.0	12.4	17.8	43.2
2016년	-0.3	0.8	2.0	3.4	5.0	7.0	9.3	12.6	18.1	42.1
2017년	-0.2	0.8	2.0	3.4	5.0	7.0	9.3	12.7	18.0	42.1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에 대해 물었을 때,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응답은 1994년에 60.1%에 달했지만 2015년에는 21.8%로 급감한 반면, 이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1994년에 5.3%에서 2015년에는 62.2%로 수직상승하였다(통계청, 2017: 배문숙, 2016에서 재인용). 이러한 수치들은 소득 양극화 현상과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수저계급론’을 명징하고 있다. 이제 개천에서 용 난다는 이야기는 옛말이며, 통장에서 용 난다는 우스갯소리가 더 많은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서두에 언급된 신조어들은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프로파간다(propaganda)적 용어가 아니라, 실재하는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계층은 대한민국 안에서 존재하며 점점 더 공고화되고 있다. 이런 사회계층화 현상은 경제적 자원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정신 및 신체 건강과 수명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Isaac, 2006). 하지만 지금까지 사회계층과 관련된 연구들은 거시적 수준의 사회학적 관점에 맞춰졌으며, 개인의 경험과 이해에 초점 맞추는 심리학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태이다(Lott, 2002). 최근 들어 사회계층과 심리적 영역과의 연관성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지만, 심리학 분야에서 사회계층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Diemer, Mistry, Wadsworth, López, & Reimers, 2013). 더구나 국내 심리학에서 사회계층과 관련된 연구는 극히 일부분이며, 그 관심도 저조한 실정이다.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초적 토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계층이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적인 물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 측정의 토대가 되는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계층의 동의어로 많이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사회계층을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계층 측정을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사회계층 방식으로 나누어 각 접근의 특성, 주요 사용 지표 및 한계점을 개관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심리학의 문헌 검토를 통해 국내에서 사회계층 측정 동향을 파악하고 고찰해보으로써 이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사회계층의 주요개념

사회계층이란 용어는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에 걸쳐 P. A. Sorokin, M. Ginsberg, T. Geiger 등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1946년 독일사회학회가 ‘사회적 계층변동’을 주제로 채택하면서 널리 확산되었다(염미경). 사회계층이란 경제적 부, 명예와 위신,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가 제도화된 현상 즉, 구조화된 불평등 체계를 말한다(권태환, 홍두승, 설동훈, 2009). 한완상과 한균자(2000)에 의하면, 동일한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동일한 희소가치를 분배받고 이들이 하나의 사회 층(stratum)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사회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위계서열에 의해 배열되는 과정을 사회계층화(stratification)라고 하고, 위계배열이 고정화되어 일정한 유형으로 굳어진 현상을 계층구조라고 한다.

사회 불평등을 내포하는 용어로는 사회계층(social stratification) 이외에도 사회계급(social class)이 있다. 이철우(2017)는 두 용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계층’은 지층

(stratum)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으며, 단순한 경제적 자원의 차이를 넘어 사회문화적 자원이나 정치적 권력의 차이까지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그 구분이 편의에 의해서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계층은 연속적 집단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계층의 구성원은 자신의 집단에 대한 심리적 귀속의식이 명료하지 않으며, 지위 불일치(status inconsistency)와 같은 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한편, ‘계급’은 로마 시대의 군 의무복무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들의 재산을 인구조사원이 분류하면서 사용한 인구통계학적 용어로, 라틴어 *classis*에서 유래되었다(Hall, 2011). 또한 역사적으로 이어온 집단 간의 갈등관계에 바탕을 두며 경제적 속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구분이 실재적이고 단절적이다. 따라서 집단 간의 경계가 명료하기 때문에 귀속의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계급이라는 용어는 Marx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념 논쟁이 극심했던 시기에는 금기시 되었지만, 근래 들어 계급과 계층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계급은 구조화된 불평등관계를 의미하는 계층의 하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이철우, 2017), 본 연구에서는 두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계층’으로 통칭하도록 하겠다.

사회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접근

사회계층에 대해 Durkheim, Marx와 Engels, Weber 등이 두 세기 가까이 연구해왔지만, 그 이론은 역사적으로 집단이나 사회적 수준에 국한되어왔다(Marx & Engels, 1973/1848; Weber, 1958). 비교적 최근 개인의 심리에 영향 미치는 사회계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심리학에서 사회계층에 대한 개념적 정의나

조작적 정의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논의는 사회계층 용어가 파생된 사회학적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계층의 개념화와 측정방식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갈등적(관계적) 접근으로, 이 접근에서는 사회계층을 상호의존적이며 본질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Lucal, 1994). 이 관점에서는 사회계층을 “생산 수단에 대한 통제를 기반으로 한 관계”로 정의하였으며, 그 구분을 위해 근로자 대 사업주, 노동자 대 자본가 등과 같은 도식을 사용한다. 갈등적 사회계층의 대표적 이론가인 Karl Marx와 Max Weber는 통제, 권위, 착취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며, 사회계급 갈등이나 계급투쟁 및 억압 및 특권 체제의 가능성을 강조하였다(Lau, Cho, Chang, & Huang, 2013). 이들은 자신들의 구성개념들을 조작화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에서는 갈등적 접근에 근거한 측정방법을 찾기 어렵다(Wohlfarth, 1997).

두 번째는 기능적(분배적) 접근으로, 이 접근에서는 사회계층을 “소득 및/또는 위신의 계층적 연속체”로 그리고 계층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기준(예: 소득)의 합계”로 바라본다(Lucal, 1994). 이 접근에서는 사회계층을 특정 기준이나 소득, 재산, 교육 및 직업적 위신에 따라 사람들을 집단으로 나누는 수단으로 간주한다(Lau et al., 2013). 기능적 접근은 양적이며 단계적이기 때문에(Wright, 1979) 각 계층들은 상대적 위치에 따라 상위계층 또는 하위계층과 같이 범주화된다(Lucal, 1994). 이 접근은 계층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계층화를 유지시키는 사회적 및 맥락적인 힘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계층 차이를 단순한 수치적 관

계로만 측정하여 기술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Lucal, 1994). 하지만 그 측정의 용이성으로 인해 많은 학문 분야의 연구들은 기능주의 입장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많은 학문 분야의 연구들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Lau et al., 2013; Wohlfarth, 1997). 이렇게 사회학에서 파생된 기능적 관점은 심리학 연구에도 그대로 차용되어 이후에 보게 될 객관적 사회계층 측정 방식으로 쓰이게 된다.

사회계층에 대한 심리문화적 접근

사회계층 측정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배경은 애초에 사회학자들 중심으로 생겨났지만, 이후 여러 심리문화적 관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주관적 사회계층 측정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 관점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첫 번째로 사회계층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이 있다. 이 관점의 기원은 사회학자인 Bourdieu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Marx와 Weber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계층 구분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보다는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내면화된 문화적 성향인 아비투스(habitus)를 핵심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 개념에 따르면 각 계층의 구성원들은 성장과정에서 자기계층 특유의 성향체계(몸의 자세 및 움직임, 언어표현 방식, 사고방식, 교양 수준, 취미, 문화적 소양, 심미안 등)를 답습하게 되고, 이런 계층적 성향이 다른 계층과 ‘구별 짓기(La Distinction)’가 된다는 것이다(홍두승, 구해근, 2001). 따라서 계층에는 사회경제문화적 자본이 포함되며 사회적으로 조건화된 특정한

취향(taste)이 반영되게 된다. 이 관점에 의하면 SNS상에서 지인(페이스북,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의 팔로워 수 등)도 문화 및 사회적 자본으로 간주할 수 있다. Bourdieu의 개념은 기존의 사회학적 관점과는 다르게 문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사회계층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방식을 심리학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넓혀진 지평으로부터 문화적 관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사회계층은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문화적 차원 중의 하나이며, 다문화 이론과 연구에 있어서 인종과 젠더(gender)와 함께 세 가지 중요한 문화적 기초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Pope-Davis & Coleman, 2001). 그 이유는 사회계층 배경은 개인을 특정한 물질적 또는 사회적 조건에 노출시키며(Stephens & Townsend, 2013) 독립적 및 상호의존적 자기-구성(self-construal)이나 여러 형태의 개인적 선호(predilection)에 지속적으로 영향 미치기 때문이다(Stephens, Fryberg, Markus, Johnson, & Covarrubias, 2012; Stephens, Townsend, Markus, & Phillips, 2012). 예를 들어, 사회계층에 따라 대화 방식(Lareau, 2011), 비언어적 행동(Kraus & Keltner, 2009), 사회적 민감성과 친사회적 행동(Piff, Kraus, Côté, Cheng, & Keltner, 2010), 양육 방식(Lareau, 2011; Sherry, Adelman, Farwell, & Linton, 2013), 예절과 관습(Bourdieu, 1985; Domhoff, 1998), 음악 및 미술 등 미적 선호(Snibbe & Markus, 2005), 음식의 선호(Monsivais & Drewnowsky, 2009) 차이를 보인다. 개인은 이렇게 일정한 행동, 규범 및 기대 양상에 동화되면서, 사상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회계층 정체성을 취하게 된다(Markus & Kitayama, 1991). 이런 측면들은 사

회계층에 대한 사회적 신호로 타인들에게 전 해지기도 하며(Kraus, Piff, & Keltner, 2011), 사회계층에 대한 사회화 차이는 개인의 주관적 세계를 구성하게 된다. 이 사회문화적 접근은 주관적 사회계층 측정의 한 가지 구성기제인 ‘사회계층 정체성’ 측정에 활용되게 된다.

두 번째인 사회인지적 관점은 사회계층에 기반을 둔 심리적 및 사회적 반응에 초점 맞춘다(Kraus, Piff, Mendoza-Denton, Rheinschmidt, & Keltner, 2012). 문화적 접근에서는 사회문화적 자기(self), 심리적 특성, 삶의 결과물에 영향 미치는 사회계층의 특정 문화적 요인에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Stephens, Markus, & Fryberg, 2012), 사회인지적 접근에서는 사회계층 배경의 근본적 구성요소인 물질적 자원과 사회계층 순위가 사회인지적 경향성을 만들고 행동을 유도한다고 바라본다(Kraus, Piff et al., 2012). 또한 사회계층의 진화론적 설명에 기원을 두는 사회인지 패턴인 생리적(예: 자율 생리학) 및 사회적 반응(예: 위협 반응성)에도 관심을 기울인다(Kraus, Piff et al., 2012). 이런 주제들은 신경과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점차 증명되고 있다(Varnum & Kitayama, 2017). 사회인지적 관점은 주관적 사회계층의 또 다른 구성기제인 ‘사회적 순위에 대한 인식’의 토대를 마련해준다. 이렇듯 사회계층에 대한 개념은 단순한 집단 간 차이 맥락에서 벗어나 한 개인의 독특한 의미로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계층이 집단 간 갈등 현상이나 분배 문제를 기술하는 사회학적 의미에서 개인의 가치관, 태도 및 신념에 영향 미치는 심리내적이고 주관적 경험을 나타내는 심리학적 관점이 점차 조망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계층 및 사회경제적 지위(SES)

사회계층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가 있다. 두 구성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연구자들 간의 합의가 부족하며(Krieger et al., 1997; Liu, Ali, et al., 2004), 언제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용되곤 한다. 그러나 사회계층과 SES가 별개의 구성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고 있고(Williams, 1990; Pope & Arthur, 2009), 사회계층 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보고자 한다.

‘사회경제적’이란 용어는 1883년 미국의 사회학자 Lester Ward가 사람들의 생활에서 사회 및 경제 영역을 연결시키기 위해 만들었지만(Jones & McMillan, 2001), SES에 대한 이론, 개념적 및 조작적 정의, 유용성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Oakes & Rossi, 2003). SES는 개인의 권력, 위신 및 자원에 대한 통제 정도에 의해 계층 구조 안에서 지정되는 개인의 위치를 의미한다(Diemer & Ali, 2009). 쉽게 수량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 수량화된 지표가 변화된다면 SES도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SES 안에서 개인의 위치는 일시적이고 유동적이라고 가정된다(Liu, Ali, et al., 2004). 이와 반면에 사회계층은 SES를 개인 및 집단의 세계관에 통합하여 순위를 매기는 다차원적 주관적 개념이다(Kraus, Piff et al., 2012). 개인이 지닌 사회적 위치, 자원 및 소속된 사회계층에서의 경험은 세계관 형성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사회계층은 태도, 의식, 가치관, 행동 및 상호작용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된다(Kraus, Piff et al., 2012; Liu,

Ali, et al., 2004). 사회계층 경험은 수량화하기 어려우며, 계층 변화는 다른 계층의 규범, 가치관 및 문화의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Liu, 2012). 따라서 단순히 SES 변인(소득, 교육수준 또는 직업)의 변화가 반드시 계층이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특정 사회계층에 속한 개인은 자신과 동일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인식하는 동시에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식하고 있다고 간주된다(Wright, 1997). 반면, SES에서는 동일한 경제적 지위의 사람들이라 하여도 공통된 계층 인식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여긴다(Liu, Ali et al., 2004). 한편 Liu(2012)는 사회계층과 SES 구성요인들의 상이한 기능에도 주목하였다. 사회계층 구조에서는 소득, 교육수준, 직업 등이 개인의 사회계층 지위를 유지하고 다른 계층 집단과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능하지만, SES 구조에서는 동일한 변인들이 사회이동성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용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측정과 관련된 조작적 정의로 넘어가게 된다면 두 개념의 구분은 모호해진다. 많은 문헌에서 SES는 개인의 소득, 교육 수준 및 직업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정의된다고 밝히고 있다(Saegert et al., 2007; Krieger et al., 1997; Santiago, Kaltman, & Miranda, 2013). 일부 연구자들은 사회계층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Brown, Fukunaga, Umamoto, & Wicker, 1996; Liu, Ali, et al., 2004). 실제로 대개의 경우, SES 요소를 사회계층의 구성 기반(Pope & Arthur, 2009) 또는 사회계층의 객관적 본질(Adler, Epel, Castellazzo, & Ickovics, 2000; Oakes & Rossi, 2003)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회계층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SES에 대한 측정과 뒤엉

키게 된다. 실제로 사회계층을 조사한다면 SES 요소를 측정하거나(Kraus, Côté, & Keltner, 2010; Ranchor, Bouma, & Sanderman, 1996), 사회계층에 대한 논의가 단지 SES로 축소되는 경향(Brown et al., 1996)은 이러한 방법론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기인한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계층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이런 혼란을 불식시켜줄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몇몇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회계층은 각기 독립적 과정인 ‘물질적 자원 수준’과 ‘사회계층 지위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의해 형성된다(Adler et al., 2000; Kraus, Piff et al., 2012). 즉, 이런 관점에서는 사회계층을 물질적 자원과 순위(rank)의 조합으로 정의(Kraus, Piff, & Keltner, 2009; Kraus, Rheinschmidt, & Piff, 2012)하며, 개인의 사회계층은 재산, 교육 및 직업과 같은 객관적 요소들과 사회 내 개인에 대한 지위에 대한 인식과 같은 주관적 요소로 구성된다고 본다(Kraus & Stephens, 2012; Stephens, Markus, & Townsend, 2007). 이런 추세는 미국심리학회에서 ‘SES에 대한 특별보고서(2007)’에서 사회계층 측정을 객관적 및 주관적 측정 모두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Saegert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의 조작적 정의를 객관적 및 주관적 측정 방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객관적 사회계층은 개인 권력, 위신 및 자원에 대한 통제 정도가 소득, 재산, 교육 수준 및 직업적 위신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통해 계층 구조 안에서 지정되는 개인의 위치(Diemer & Ali, 2009)를 의미하며, 이는 곧 SES를 의미한다. 반면, 주관적 사회계층은 개인 자신의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보다 질적이며 상대적으로 주관

표 2. 사회경제적 지위(SES) 및 사회계층의 비교

	사회경제적 지위(SES)	사회계층
개념적 정의	개인 권력, 위신 및 자원에 대한 통제 정도에 의해 계층 구조 안에서 지정되는 개인 위치	SES를 개인 및 집단의 세계관에 통합하여 순위를 매기는 다차원적 주관적 개념
조작적 정의	개인의 소득, 학력, 직업으로 측정	객관적 사회계층인 SES 지표와 주관적 사회계층 즉, 개인의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
특징	특정시기의 개인의 경제적 상황 제시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주관적 경험 제시
사회이동성	상대적으로 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계층의식	없음	있음
구성요인들의 기능	사회이동성의 수단	타 계층과의 경계유지 수단

적 방식으로 측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사회계층의 객관적 측정: 사회경제적 지위

객관적 사회계층은 앞서 보았듯이 사회학의 기능적 접근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은 방식이다. 객관적 사회계층 즉, 사회경제적 지위 측정에서 ‘객관적’이라는 용어는 편향이 개입되지 않은 중립성을 의미하기 보다는 사회계층 지표 그 자체로 계층적 위치를 규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소득, 교육 정도, 직업적 위신은 SES 지표의 “삼총사”로, 사회과학 연구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사회학자와 경제학자는 전통적으로 총 소득, 근로소득 및 재산과 같은 경제적 자원 지표들을 더 많이 사용하지만 심리학자들은 교육 정도와 직업적 위신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Duncan & Magnuson, 2003).

소득(income)은 교육 수준과 직업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사회계층 구조 내에서 개인의 지위를 알려주는 지표로 인식된다(Liu, 2010). 또한 가치 있는 물질적 재화 및 건강관리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개인 접근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평가해준다는 점에서 소득은 사회계층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지표이기도 하다(Kraus & Stephens, 2012). 일반적으로 소득 측정은 연간 개인 소득, 연간 가계 소득에 대한 질문을 통해 수집된다(Shavers, 2007; Krieger et al., 1997). 이렇듯 사회계층 연구에서 소득은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임에도,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소득은 전(全) 생애뿐만 아니라 일 년 이내의 단기간에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의 소득에 대한 측정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일생의 여러 시점에 걸쳐 소득 측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Lau et al., 2013). 둘째, 응답자들이 소득에 대해 응답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보고할 가능성이 높으

며, 특히 고소득자들의 경우 응답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Shavers, 2007). 세제, 가계 소득 정보만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실제 생활과 가족 인원수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연간 가계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1인 가구와 5인 가구의 삶은 상당히 다를 것이다. 또한 가계 소득 자체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구매력과 소비를 대변해주지 못할 수 있다. 가정주부는 자신보다 자녀나 남편을 우선시하여 소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Krieger et al., 1997; Shavers, 2007). 마지막으로 소득은 복합적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 연간 소득에 대한 단순한 질문만으로 그 구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즉, 개인 수입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임대료소득, 배당금, 이자, 이전지출 등으로 구성될 수도 있으며, 소득은 전혀 없지만 상속이나 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재산(wealth)을 측정하기도 한다. 재산은 소득, 부채, 보유 주식 및 부동산과 같은 개인의 경제 집합체를 칭하며(Liu, 2010), 연구에 따라 주택 및 차량 소유 여부를 조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재산은 총 순재산액 또는 자산(주식, 채권, 주택 소유, 사업 소유)에서 부채(대출 등)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된다(Diemer et al., 2013). 따라서 일부 응답자는 순재산액이 없거나 빚을 지고 있는 마이너스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재산은 소득 변동 영향을 완충시켜주며 세대 간 전달을 반영해주는 장점이 있다(Saegert et al., 2007). 또한 소득, 교육 정도와 같은 지표보다 아동의 학업적 성취와 청소년의 대학 입학 및 졸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Hardaway & McLoyd, 2009; Yeung & Conley, 2008). 하지만 사회계층 지표로서 재산

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불명확하며, 개인 재산에 대한 모든 측면들을 다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소득에 대한 정보보다 더 사적이기 때문에 무응답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며, 재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응답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산 지표는 특정 개인이나 가족의 경제적 지위를 보다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학 연구에서 객관적 사회계층을 측정하기 위한 차세대 주자로 손꼽히기도 한다(Diemer & Ali, 2009; Shanks & Destin, 2009).

교육 정도(Educational attainment)는 특정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해 소요된 자원을 보여주며, 인적 자본을 대략적으로 측정한다(Duncan & Magnuson, 2003). 또한 학력은 소득과 지위가 높은 직업의 발판이 되어 주고, 중산층과 상류층 환경에서 사는데 필요한 문화적 자본 유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사회계층의 한 가지 측정 방식으로 간주된다(Snibbe & Markus, 2005).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결과가 나아지고(취업 가능성, 고소득, 여유 있는 재정상태), 심리사회적 자원은 증가되며(더 많은 통제감과 사회적 지지), 건강 위험 행태는 감소하는 것이다(적은 흡연량과 많은 운동량)(Ross & Wu, 1995). 교육 정도에 대한 측정은 통상적으로 최종 학력 수준(예: 고졸, 대졸, 대학원 졸 등)이나 총 교육년수를 통해 이뤄진다. 교육 정도 측정이 가진 장점은 측정이 용이하며, 적극적 노동력이 없는 대상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고, 성인기 건강상태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점에서 안정적이며, 수많은 건강 연구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는 점이다(Ross & Wu, 1995). 하지만 교육 정도가 사회계층의 가장 타당한 측정이라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다. 첫째, 성인의 경우 교육 정도에 있어 변동 폭이 매우 작다는 점은 시간 경과에 따라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취업난, 경제 불황, 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사회계층 변화를 설명해주지 못한다(Lau et al., 2013). 둘째, 교육 정도에 따른 결과는 출생코호트, 성별, 인종/민족 등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Krieger et al., 1997). 예컨대, 1930년대 대졸 여성을 2010년대 대졸자와 동일하게 간주해서는 안된다. 또한 모국에서 고학력 전문직을 가졌던 난민이 망명국에서 3D 업종에 종사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교육 정도만으로는 그 개인의 사회계층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셋째, 사회 다양화로 인해 교육 정도와 특정 사회계층과의 연관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Liu, 2010). 고학력자가 아니지만 상당한 사회적 성공을 이룬 벤처 기업가나 IT업계 종사자, 스포츠 스타들이 그 대표적 예이다.

구성개념으로 직업적 위신(Occupational prestige¹⁾)은 외견상 단순하게 보인다. 소득이나 재산 변인과 비교해보면 사람들은 직업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응답률이 높기 때문이다(Shavers, 2007).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직업이 특정 직업에 대한 기술과 권력의 암묵적 측정이며(Bornstein, Hahn, Suwalsky, & Haynes, 2003), 직업 유형, 직업 수준 등 여러 변인들을 반영하는 종합적 범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의 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한다(Galobardes, Shaw, Lawlor, Lynch, & Smith, 2006). 또한 직업은 개인 교육 정도의 결과물이며,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여겨진

다. 직업적 위신은 그 직업의 사회적 지위, 바람직성이나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얻어지는 존중 정도, 나아가 직업의 선량함과 관련해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되어질 수 있다(Hauser & Warren, 1997). 이 지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직업적 위신은 특정 직업의 상대적 가치와 중요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간과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Liu, 2010). 예를 들면 과거 공산권 국가에서 화이트 칼라보다 블루 칼라를 더 높이 대우한 사실은 직업적 위신이 사회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직업적 위신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들 또한 있다. 둘째,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유급 노동력 이외의 대상 즉, 가정주부, 아동, 퇴직한 성인들, 불법업종 종사자 등의 경우 직업 측정이 불가능하다(Arber, 1989). 셋째, 동일한 직업 내에서도 직무나 직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순한 질문만으로는 해당 직업이 지닌 권력, 기술 및 위신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개별 지표 이외에도 SES의 여러 지표들을 계산한 종합(composite) 지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종합 지수로 는 직업적 위신, 소득 및 교육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한 Duncan의 사회경제적 지수(Duncan's Socioeconomic Index: SEI),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중위 소득(median income) 및 교육에 기반한 Nam-Powers 직업적 지위 점수(Nam-Powers Occupational Status Score), 특정 개인의 직업에 대한 Nam-Power 직업적 지위 점수를 그 개인 교육 수준 및 가족 소득과 합산한 Nam-Powers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Nam-Powers Socioeconomic

1) prestige를 일부에선 위압과 권세의 준말인 '위세'로도 번역하지만, 위엄과 신망을 의미하는 '위신'이라 함이 보다 적절하다.

Status Score), 개인의 직업적 순위 및 교육 수준에 대한 정보를 종합한 Hollingshead 사회적 지위 지수(Hollingshead Index of Social Position) 등이 있다(Krieger et al., 1997). 그러나 이런 종합 지수는 구식 분류 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어떤 SES 구성요소가 변인들 간의 연관성을 유도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지 못한다(Duncan & Magnuson, 2003; Oakes & Rossi, 2003). 예를 들어, SES 종합 지수는 학생들의 교육 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지만, 각 구성요소가 개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SES 지표가 교육 성취도를 설명해주는지 알 수가 없다. 반면, SES 개별 지표들은 각 구성 요소의 고유한 기여도에 대한 추정치를 산출하기 때문에 학문, 정책 및 개입에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학자들은 SES 종합 지수 사용을 반대하며 대신 개별 지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Saegert et al., 2007; Duncan & Magnuson, 2003).

지금까지 객관적 사회계층 측정 방법으로서 SES 지표들은 사회계층의 복잡한 구성개념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며 편향을 방지해주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Lau et al., 2013). 첫째, SES 측정은 동일한 수준의 개인들 간의 질적 차이를 설명해주지 못한다(Kraus et al., 2009). 즉, 수도권 유명 사립대 졸업자와 영세한 지방 대학 졸업자는 사회적 인정, 삶의 기회, 사회적 네트워크 등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교육 정도 즉, ‘대졸’로 표기될 뿐이다. 소득 측정에서 역시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즉, 동일한 소득을 보고하지만 각 개인별 부채나 저축액에 따라 삶의 모습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둘째, 소득, 교육, 및 직업과 같은 객관적 사회계층 지표는 이를 소유한 사람들, 주로 성인에게만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계층을 성인의 경험으로만 간주하는 위험성을 내포하며, 아동이나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계층 경험이나 계층 차별을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아동들이 사는 곳을 근거로 ‘휴거(휴먼시아 거지)’나 ‘주거(주공아파트 거지)’로 칭하며 왕따를 시키는 현상(권순걸, 2017)은 이들이 소득, 학력 및 직업과 상대적으로 무관하지만 사회계층 차이를 인식하며 계층차별적(classist)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엄연히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객관적 지표로 사회계층을 분류하는 것은 개인이 사회계층에 대해서 지닌 독특한 의미와 개별성을 포괄하지 못한다. 실제로 소득 측정에서 개인의 실제 소득보다 동료나 또래 집단 사람들의 소득과 비교하는 ‘상대적 소득’이 더 의미가 있다는 점은 이를 반영한다(Pingle & Mitchell, 2002). 마지막으로 객관적 지표로 측정된 사회계층의 경우, 동일한 사회계층에 속한 개인들이 유사한 성격, 가치, 동기, 세계관을 지닌 것으로 가정한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 교육 수준, 직업은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가치나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다.

사회계층의 주관적 측정: 사회적 순위에 대한 인식 및 사회계층 정체성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객관적 사회계층 측정인 SES 지표가 지닌 여러 한계점으로 인하여, 최근 들어서는 일부 사회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사회계층 측정에 있어 주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 주관적 사회계층은 ‘사회적 순위에 대한 인식’ 및 ‘사회계층 정체성’의 두 가지 기제로 구성되어

있다(Diemer et al., 2013; Kraus et al., 2012; Rubin et al., 2014; Stephens et al., 2012). 사회인 지적 접근방식에서는 자신이 어느 사회계층에 속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 기능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사회적 순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Boyce, Brown, & Moore, 2010). 사회계층은 단순히 개인이 얼마나 많이 가지는가가 아니라,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혹은 더 적게 가지고 있다고 믿는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Kraus, &

Stephens, 2012). 이 측정은 사회에서 타인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적 자본(직업적 위신, 소득), 사회자본(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연고나 연결) 및 문화자본(실용적 지식, 기술 및 아비투스)을 바탕으로 이뤄진다(Diemer et al., 2013; Loignon & Woehr, 2018). 이러한 접근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측정 방식은 ‘주관적 사회적 지위에 대한 MacArthur 척도’(Goodman et al.,

질문 1.

이 사다리는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커뮤니티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내립니다.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정의내리세요. 사다리 가장 윗 단은 당신의 커뮤니티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지닌 사람입니다. 가장 아래 단은 당신의 커뮤니티에서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이 사다리에서 어느 단에 해당되나요?

커뮤니티 사람들과 비교해서 당신이 현재 있는 위치에 “X”를 써넣으세요.



질문2.

이 사다리는 우리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사다리 가장 윗 단은 가장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가장 많고, 최고 학벌이며, 가장 존경 받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사다리 가장 아랫단은 가장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가장 없고, 교육을 가장 덜 받고, 거의 존경 받지 않는 일을 하거나 직업이 없습니다. 사다리 위에 있을수록 가장 잘 사는 사람들과 가까워집니다. 사다리 아래에 있을수록 가장 못사는 사람들과 가까워집니다.

당신은 이 사다리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되나요?

우리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당신이 현재 있는 위치에 “X”를 써넣으세요.



출처: <http://www.macses.ucsf.edu/research/socialenviron/sociodemographic.php>

그림 1. MacArthur 척도(MacArthur Network on SES and Health)

2001; Kraus et al., 2009)이다. 이 척도에서는 응답자의 사회계층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득이나 교육 수준을 질문하는 대신, 10단 사다리를 제시하고 자신이 속해 있다고 여겨지는 사다리 단계에 X를 표시하라고 요청한다. 권장되는 방식은 그림 1과 같이 ‘커뮤니티(공동체, 지역사회 등) 안에서 자신의 위치 표시하기’와 ‘(전체) 사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 표시하기’ 두 가지로 제시하는 것이다. 사다리 측정은 성인(Adler et al., 2000) 뿐만 아니라 청소년(Goodman et al., 2001) 및 초등학생(Mistry, Brown, White, Chow, & Gillien-O’Neel, 2015)에게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성인의 신체적 건강(Adler et al., 2000; Singh-Manoux, Adler & Marmot, 2003; Singh-Manoux, Marmot, & Adler, 2005), 개인적 통제감(Kraus, Piff et al., 2009), 빈곤층, 중산층 및 부유층에 대한 아동들의 집단 간 태도(Mistry et al., 2015)의 강력한 예측인자로 밝혀진 바 있다.

앞서 살펴본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개인의 상대적 사회계층 지위를 드러내지만, 이것이 그 개인이 자신의 사회계층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나 중요성까지 반영해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주관적 사회계층의 또 다른 구성기제는 사회문화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계층 정체성’이다(Bourdieu, 1987; Stephens, Fryberg et al., 2012). ‘정체성’은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이 해석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안내하는 “개인 경험 중심의 해석적 구조”를 반영한다(Stephens, Brannon, Markus, & Nelson, 2015). 사회계층에 대한 개인의 상대적 인식과는 다르게 정체성 기제는 개인이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Stephens & Townsend, 2013). 따라서

사회계층 기반 정체성에 대한 측정은 주로 제시된 계층 범주에 따라 참여자가 자신을 분류하도록 요청하거나(Horberg, Oveis, Keltner, & Cohen, 2009; Jetten, Iyer, Tsivrikos, & Young, 2008), 참여자에게 자신이 해당된다고 여기는 사회계층이 무엇인지 직접 질문하는 방식을 취한다(Liu, 2010).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Liu와 그 동료들이 개발한 Social Class Worldview Model(SCWM)은 사회계층 ‘경제문화’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방식을 설명해주는 이론적 구조를 제공해준다(Liu, Soleck, Hopps, Dunston, & Pickett, 2004). SCWM에서는 사람들이 복장, 언어 및 에티켓과 같이 자신의 계층 지위에 따른 특정 행동을 규정하는 계층 관련 세계관과 경제문화를 내면화하면서, 자신이 인식하는 계층 지위 안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가정한다. SCWM 측정은 자신을 어떤 사회계층으로 자신을 규정하는지 뿐만 아니라, 특정 경제문화에 일치해야 한다는 인식된 압력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묻는다. 이러한 심리적 접근은 사회계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와 사회계층이 사람들에게 의해 어떻게 주관적으로 해석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관적 사회계층 측정의 타당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려가 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 범주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개인은 SES 관점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신뢰롭게 보고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Sagert et al., 2007). 그리고 감정 상태에 따라서 사회계층에 대한 보고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지만, 실험상황에서 참여자들의 기분을 조작하여도 주관적 사회계층 평가에 영향을 끼

치지는 않았다(Kraus, Adler, & Chen, 2013).

주관적 사회계층과 객관적 사회계층의 관련성

주관적 사회계층 측정과 객관적 사회계층 측정 사이에는 중간 정도 크기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Kraus et al., 2009; Ostrove, Adler, Kuppermann, & Washington, 2000). 하지만 상관계수가 1이 아닌 것은 주관적 측정이 객관적 측정과 마찬가지로 사회계층의 중요한 측면을 평가하긴 하지만,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정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주관적 사회계층의 독립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사회계층 및 SES의 객관적 측면을 통제한 결과, 주관적 사회계층은 객관적 지표들로는 포착되지 않는 사회계층의 고유한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Rubin et al., 2014). 또한 주관적 사회계층은 객관적 사회계층과는 무관하게 사회사상, 정서 및 행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Kraus et al., 2011). 한편 Loignon과 Woehr의 메타분석(2018)에 따르면, 주관적 사회계층은 구조방정식에서 반영적 지표(reflective indicators)²⁾와 더 가깝게 대응하며, 이 잠재적 구성개념은 개인이 자신의 상대적 지위에 대한 인식 및 특정 계층에 대해 동일시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객관적 사회계층은 형성적 지표(formative indicators)³⁾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흥미롭게도 두

가지 형태의 사회계층이 서로 다른 측정 모델에 의해 정의되더라도, 연구 결과는 두 지표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메타분석 결과에서는 주관적 사회계층이 객관적 사회계층의 부분 매개 역할을 하거나 중첩되는 경로를 지니기 보다는 각기 개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잠정적 결론이 도출되기도 하였다(Cundiff & Matthews, 2017). 실제로 여성이나 흑인처럼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속한 개인의 경우, 주관적 사회계층이 객관적 사회계층보다 신체적 건강과 더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undiff & Matthews, 2017). 이러한 결과들은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사회계층이 각기 다른 구성개념이라는 현재의 보편적 인식을 지지해준다(Adler, 2009). 종합하자면, 주관적 사회계층 측정은 객관적 사회계층 측정의 대안이 아니며, 오히려 두 가지 측정들은 각기 다른 영역을 포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계층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회계층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더불어 주관적 사회계층을 함께 측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심리학에서 사회계층 측정 동향

이제 국내 심리학회에서 사회계층 측정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국내 학회지 게재 논문 중 사회계층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나 척도를 사용하였다고 보고한 연구 중 선정 기준을 충족한 논문은 총 23편으로 나타났다. 논문 선정을 위해 한국심리학회 분과학회에서 발간되는 15개 전문학술지의 1967년도에서 2017년까지 발표된 연구 총 8,684편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심리학

- 2) 반영적 지표는 측정(관측)변수가 구성개념의 실제 값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구성개념이 측정변수의 원인이다(이학식, 임지훈, 2007).
- 3) 형성적 지표는 측정변수가 구성개념의 값을 형성(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즉, 측정변수가 구성개념의 원인이다(이학식, 임지훈, 2007).

회 산하학회에서 발간하는 분과 학회지 검색 서비스를 통해 ‘사회계층’과 관련된 용어인 ‘사회계층’,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중산층’, ‘중류층’, ‘상류층’, ‘상위계층’, ‘하류층’, ‘하위계층’, ‘빈곤’, ‘가정환경’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160개 논문에서 학술대회 자료집(29편)과 중복된 논문(32편)은 제외한 결과, 99개의 논문이 수집되었다. 이 논문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논문을 선정하였는데, 사용된 배제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 되었더라도 각 문헌의 초록을 연구자가 살펴보고 본 연구 목적과 무관한 논문은 제외하였다(46편)⁴⁾. 둘째, 사회계층 측정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드림스타트 사업수혜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의 특정 사회계층 연구는 배제하였다(14편). 셋째, 가정환경 변인이 사회계층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의미하지 않고 부모 양육태도나 가족 구조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배제되었다(7편). 넷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는 포함되지 않았다(1편). 다섯째, 사회계층 측정에 있어서 구체적 지표가 불분명하게 제시한 논문을 제외하였다(5편). 마지막으로, 개관연구(1편) 및 실험연구(2편)도 본 연구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불포함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총 23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표 3에는 각 연구의 객관적 사회계층 지표 또는 주관적 사회계층 측정 여부, 사용 지표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사회계층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들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4) 본 연구와 무관한 논문이 많이 검색된 이유는 다양한 논문 검토를 위해 상세검색에서 ‘전방일치’가 아닌 ‘키워드’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지표 개수에서 부와 모 각각을 측정 하는 경우 독립된 지표로 간주하였다. 즉, 부 학력만 사용한 경우는 사용 지표를 1개, 부모 학력 모두를 사용한 경우는 2개로 표기하였다. 사회계층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는 그 상이함을 강조하기 위해 연구에서 기술된 표현 그대로를 기재하였다.

사회계층 측정에서 객관적 사회계층 지표를 사용한 연구는 15편(65.2%), 주관적 사회계층 측정을 한 연구는 7편(30.4%)이었으며, 객관적 사회계층 지표와 주관적 사회계층 측정을 모두 사용한 혼합형이 1편(4.3%)이었다.

우선 국내 연구에서는 선호되는 객관적 사회계층 측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객관적 사회계층을 측정한 총 15편의 연구 모두에서 포함된 지표는 ‘학력’으로 나타났으며, 다시 말해 국내 심리학회 연구에서 객관적 사회계층의 주요 측정 지표는 ‘학력’이라 하겠다. 학력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지표는 ‘소득’으로 12편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세 번째로 이용 빈도가 높은 지표는 ‘직업’으로 8편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직업 서열화 기준을 제시한 연구는 3편으로 각각 김영모, 홍두승, Hollingshead의 직업 분류를 따랐다. 15편 연구에서 10편(66.7%)이 주로 3개 또는 4개의 지표를 사용함에 따라 국내 연구에서는 객관적 사회계층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학력’, ‘소득’ 또는 ‘부모학력’, ‘소득’, ‘부 직업’ 지표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특한 지표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소득 이외로 ‘지난 달 지출한 아동용 도서구입비’(장유경, 성지현, 2011)나 ‘부모 총 교육연수’ 측정이 있었다(최영은, 최미혜, 남민지, 2013). 한편, 객관적 사회계층 지표들의 점수 환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논문들은 표

표 3. 국내 연구에서 사회계층 측정 방식, 사용 지표 개수, 사용지표, 용어

번호	년도	연구자	사회계층 측정						지표 개수	용어
			객관적 사회계층					주관적 사회 계층		
			학력	소득	직업		기타			
					부	모				
1	1993	김정원 외						●	1	사회경제적 수준
2	1998	박영신 외	●	●	●	●	●		5	사회경제적 지위
3	2000	이소은	●	●		●			3	사회계층
4	2001	양국선 외	●	●	●	●	●		5	사회경제적 지위
5	2001	김의철 외	●	●	●	●			4	사회경제적 지위
6	2001	임진영	●						1	가정의 지위환경
7	2003	하영희 외	●	●	●	●			4	사회경제적 지위
8	2003	하은혜 외						●	1	사회경제적 수준
9	2005	하영희 외	●	●	●				3	사회경제적 지위
10	2006	홍영오 외						●	1	주관적 사회경제적 계층
11	2007	정은의 외		●	●	●			3	사회경제적 요인
12	2008	이지연 외	●	●	●				3	사회경제적 지위
13	2009	박영신 외						●	1	사회계층
14	2009	백혜정	●					●	2	사회경제적 지위
15	2011	장유경 외	●	●	●		●		4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16	2012	구재선 외	●	●	●				3	사회경제적 지위
17	2013	조용래 외						●	1	사회경제적 지위
18	2013	최영은 외	●	●	●	●	●	●	6	사회경제적 지위
19	2014	박혜숙 외			●				1	사회경제적 수준
20	2014	송보라 외	●	●	●				3	사회경제적 지위
21	2014	김영혜 외	●	●		●	●		4	사회경제적 지위
22	2016	김범준						●	1	사회계층
23	2016	박영신 외						●	1	사회계층

표 4. 객관적 지표 수치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논문 및 그 내용

번호	연구자	사용지표	기준 및 수치화 방식
1	정은의, 노안영 (2007)	3개	학력: 고졸이하(1점)~대학원이상(5점) 직업: 김영모(1979)의 직업분류. 무직(1점)~전문직(6점) 수입: 150만원 미만(1점)~460만원 이상(5점) * 각 지표 점수 합산하여, 사회경제적 요인 점수로 사용
2	장유경, 성지현 (2011)	4개	부모학력: 고졸이하(1점)~대학원졸(4점) 월소득: 100만원 이하(1점)~500만원 이상(5점) 지난 달 지출한 아동용 도서구입비: 주관식 응답 * 각 지표 별로 따로 통계 처리.
3	최영은, 최미혜, 남민지 (2013)	7개	부모직업: Hollingshead(1975) 분류에 의해 1점~9점 부모 최종학력: 초등학교 중퇴(1점)~대학원 박사졸업(12점) 부모 총 교육 연수: 보기 없이 직접 기재 가정 내 평균 연소득: 1,000만원 이하(1점)~9,000만원 이상(6점) * 각 지표 별로 따로 통계 처리.
4	송보라, 이기학 (2014)	3개	부모학력: 초졸 이하(1점)~대학원 졸(5점) 가구월수입: 100만원 이하(1점)~500만원 이상(5점) * 각 지표 별로 따로 통계 처리
5	김영혜, 안현의 (2014)	4개	부모학력: 중학교 이하(1점)~대학원 졸업(5점) 부모직업: 홍두승(1983) 직업계층분류에 의해 1점~5점 * 각 지표 별로 따로 통계 처리.

4와 같이 5편(31.2%)에 불과하였고, 사용 지표를 밝혔지만 이와 관련된 수치화 정보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논문이 11편으로 68.8%에 달하였다. 표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점수 환산 방식을 제시한 5편의 논문에서 여러 지표 점수들을 합산한 종합점수를 사용한 연구는 1편(정은의, 노안영, 2007)이었으며 나머지 4편(김영혜, 안현의, 2014; 송보라, 이기학, 2014; 장유경, 성지현, 2011; 최영은 외, 2013)은 각각의 지표들을 개별적으로 통계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주관적 사회계층 측정을 한 연구는 7

편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순위에 대한 인식’과 ‘사회계층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측정 방식 중 국내에서는 후자만이 쓰였다. 즉, 여러 사회계층 범주를 제시한 후 자신이 해당되는 사회계층이나 사회경제적 수준,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묻는 방식이 주로 쓰였다. 제시된 사회계층 범주를 본다면, 3단계가 제시된 연구는 3편(박영신, 김정희, 전성숙, 2016;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해진, 이재창, 2006), 5단계는 2편(김정원, 오경자, 1993; 박영신, 김의철, 2009), 그리고 7단계(조용래, 양상식, 2013), 9단계(김범

준, 2016)는 각 1편이었다. 객관적 사회계층 및 주관적 사회계층 두 가지를 다 사용한 백혜정(2009)의 경우(혼합형),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부의 ‘학력’(4점 척도)과 ‘경제소득 수준’(5단계)을 사용하였다. 한편 총 23편의 연구에서 사회계층 동의어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1편), ‘가정의 지위 환경’(1편), ‘사회경제적 수준’(3편), ‘사회경제적 요인’(1편), ‘사회경제적 지위’(12편), ‘사회계층’(4편), ‘주관적 사회경제적 계층’(1편) 총 7가지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사회계층’보다 ‘사회경제적’이라는 용어가 보다 선호됨을 짐작할 수 있다.

논 의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계층화 현상을 고려해볼 때, 사회계층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필요성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계층이 주요한 연구 주제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계층의 중요성과 그 측정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관련 문헌들을 개관하고 현재 국내 사회계층 측정 동향을 살펴본 것은 향후 관련 연구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의 이론적 배경, 사회계층과 유사 용어인 사회경제적 지위(SES)에 대해 살펴보고, 객관적 및 주관적 사회계층 측정방식들과 각 지표들의 특징과 제한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 심리학 문헌에서 사회계층 측정이 포함된 23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연구의 문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를 제시한다.

첫째, 국내 심리학 연구 총 8,684편에서 사회계층 변인 측정이 포함된 연구가 23편(0.26%)에 불과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사회계층이란 연구주제가 아직 사회학, 정치학, 보건학과 같은 학문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2편에 불과했던 사회계층 측정이 이뤄진 논문이 2000년대 이후 21편으로 급증하였고, 최근에는 특히 일부이지만 ‘사회계층’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용어가 논문 명에 포함된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가정환경의 하위변인에 머물러 있던 사회계층이나 SES를 고유한 독립변인으로 바라보고 접근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김범준(2016)의 연구와 사회계층에 대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본 연구 목록에서는 제외된 최승혁, 허태균(2012)의 실험연구 및 박혜경(2015)의 개관연구는 사회계층을 전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사회계층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내 심리학계에서도 사회계층 변인에 대한 보다 의도적이고 직접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계층과 관련된 총 23편의 연구에서 사회계층을 의미하는 각기 다른 7가지의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관련 연구가 증가하면 더 많은 동의어가 사용될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는 사회계층 동의어로 480여개가 사용됨을 밝혀낸 Liu와 Ali 등(200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국내 심리학계에서도 사회계층에 대한 정의나 조작화에 대한 합의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용어 사용은 연구자마다 지닌 시각과 입장의 반영일 수 있지만, 자칫하면 연구자가 의도하는 의미와 독자가 이해한 내용 사이의 불일치

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앞서 밝혀진 것과 같이 국내 연구자들이 ‘사회계층’ 보다는 ‘사회경제적’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객관적 사회계층 측정을 주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사회계층 개념을 객관적 사회계층으로만 한정 지어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사회이동성, 계층차별(classism), 계층차별 관련 외상(classism-based trauma; Liu, 2013) 등과 같은 다양한 인간 경험을 심리학적 주제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사회계층에 대한 개념정립과 더불어 ‘사회계층’이라는 통일된 용어 사용이 권장되어야 한다.

셋째, 객관적 사회계층 측정이 이뤄진 국내 연구 15편을 정리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지표는 ‘학력’(15편), ‘소득’(12편), ‘직업’(8편) 순이었다. 하지만 학력 지표의 경우, 대부분 연구에서는 부모 양쪽 모두를 측정한 경우와 부모 중 한명의 학력, 또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학력을 측정하였다고만 제시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소득 지표의 경우 더욱 모호하다. 연구마다 ‘한달 수입’, ‘가정소득’, ‘연평균 가구소득’, ‘경제수준’ 등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주체가 불분명하고 소득이 월급인지 연봉인지 불명확하게 기재되었다. 월 개인 소득, 연간 개인소득, 월 가게 소득, 연간 가게 소득에 따라 그리고 맞벌이나 외벌이 여부에 따라 사회계층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소득 지표 사용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은 자료의 신뢰성이다. 소득 지표를 사용한 연구(12편)의 측정 대상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 본인의 소득을 측정한 1편(정은의, 노안영, 2007)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구 대상자 부모의 소득을 측정하였다. 아동 또는 청소년 대상 연구 5편은 부모가 직

접 응답하도록 하였지만, 나머지 6편의 경우(청소년 5편, 대학생 1편) 연구대상자가 부모 소득을 추정해서 기재하도록 했다. 자녀의 경우 부모 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가족 소득에 대해 답변하지 못했다고 보고되었다(Jetten et al., 2008).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가 성인이 아니거나 경제관념이 없는 경우라면 보다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통해 소득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겠다. 직업 위신 지표를 사용한 9편의 연구에서 서열화 기준이 제시된 연구는 단 3편에 불과했다. 또한, 사용된 직업 분류방식 역시 40여년 전에 도입된 기준인 김영모(1979), 홍두승(1983), Hollingshead (1975)의 분류로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는 2010년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 중 한명의 직업만(주로 부 직업)을 측정하였는데, 점차 증가되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고려한다면 부모 모두의 직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한편 한국사회의 만연된 비정규직 문제를 감안한다면, 직업적 위신 측정 시 고용형태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 지표를 사용한 논문 15편 중 11편의 논문에서는 사용된 지표만 간단히 제시되며 점수화 기준이나 방식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논문의 결과에서 제시된 점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제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각 지표들을 개별적으로 통계처리를 한 연구들도 있었지만, 각 지표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사회계층 변인 점수로 사용한 연구도 있었다. 객관적 사회계층 지표들은 상호연관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Loignon &

Woehr, 2018), 여러 지표들을 통해 최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단일한 추가 지수(즉, 지표들의 합산이나 평균)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연구 목적과 사회계층의 어떤 측면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연구자가 적절한 개별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APA (2000)에서도 이와 같이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객관적 지표를 선별하여 개별적으로 통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객관적 사회계층 측정에 관한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한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One size does not fit all.”(Braveman et al., 2005)이다. 즉,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최적의 단일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객관적 사회계층 지표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지만 각기 다른 결과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Diemer et al., 2013; Singh-Manoux et al., 2003), 어떤 SES 구성요소가 객관적 사회계층 지표로서 적절한지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연구자가 연구목적과 특정 집단에 가장 적합하고 의미 있는 지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주관적 사회계층 측정과 관련된 국내 연구 7편 모두 ‘사회계층 정체성’만을 측정하였으며, 각 연구마다 제시된 계층 범주는 3단계, 5단계, 7단계, 9단계로 매우 일관성이 없었다. 계층귀속 의식은 사회상의 영향을 받는데, 이는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는 인구 비율이 80년대 후반에는 60~80%, 90년대 중반에는 42%, 2000년에 들어서는 20%로 축소되어 가는 경향(강원택, 김병연, 안상훈, 이재열, 최인철, 2014)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추후 주관적 사회계층 측정에서 사회계층 정체성을 사용할 경우, 상중하와 같은 단순한 범주보다는 상상-상중-상하-중

상-중중-중하-하상-하중-하하와 같이 7단계나 9단계의 세분화된 범주를 사용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응답률이 높을 수 있는 특정 계층 범주를 보다 의미 있는 하위 범주로 확장하여 제시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반응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관적 사회계층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개인의 사회적 순위에 대한 인식’ 측정은 국내 연구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장성숙(2003)에 따르면 한국은 관계지향적 집단주의적 문화를 지닌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배척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내·외집단에 대한 차별을 두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타인과 비교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다. 즉, 국내 연구에서 타인들과 비교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MacArthur 척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한국인의 독특한 사회계층 인식을 밝혀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사회계층 정체성 측정과 사회적 순위에 대한 인식 측정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기 때문에(Loignon & Woehr, 2018), 두 가지 측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주관적 사회계층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사회계층 측정에서 교차성(intersectionality) 쟁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차성 개념은 계층, 성별, 그리고 인종 등과 같은 권력관계들이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손인서, 김승섭, 2015)으로 가령, 사람이 겪는 차별은 각 차별의 단순 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별이 교차하면서 서로 강화한다는 것이다(정진희, 2016). 한국사회 내 만연한 성차별적 구조나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국내 다문화 연구가 주로 행해지고 있는 경향(오은경, 최미, 최한

나, 2016)을 본다면 사회계층 측정에서 사회계층만이 아닌 성별이나 인종과 같은 변인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주관적 측정은 객관적 측정과는 다르게 응답자 자신의 개인적, 상황특수적 경험 및 참조 집단을 바탕으로 하는 내면화된 기준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Rubin et al., 2014), 사회계층 영향을 다른 사회적 범주와의 교차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다섯째, 기존의 객관적 사회계층이 지닌 한계로 인해 일각에서는 그 대안으로 주관적 사회계층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계층은 물질적 자원 수준과 사회계층 지위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의해 형성된다고 밝혀지고 있다(Adler et al., 2000; Kraus, Piff et al., 2012). 따라서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사회계층은 각기 다른 영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개인의 사회계층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회계층 지표인 SES와 주관적 사회계층 측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비교문화 연구에서는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성으로 인해 측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가령, 일본에서는 객관적 사회계층 지표가 더 강력한 예측인자였지만, 미국에서는 주관적 사회계층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Curhan et al., 2014; Park et al., 2013)은 일본과 유사한 문화권에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서구 중심의 연구결과들을 한국에서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국내 심리학 연구들은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중에서 사회계층에 대한 보고가 저조한 경향을 보인다. 참가자에 대한 정보는 연구의 질을 평가하고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추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최근 미국심리학회에서는 연구논문에서 사회계층 특성에 대한 보고가 권장되고 있는 추세이다(APA, 2000; Saegert, 2007). 따라서 국내 심리학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서 참여자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사회계층도 함께 제시하는 방침을 정립한다면,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메타분석과 같은 회고적 연구를 통해 사회계층이 지닌 영향력을 살펴보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국내 연구 동향 검토 시 사회계층 측정을 사용한 논문만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국내 심리학 연구에서 사회계층 변인 사용을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선행연구에 대한 보다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사회계층이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로 사용되었는지, 실제 분석에서 특정 변인으로 사용되었는지(예: 매개변인, 중재 변인, 통제 변인 등), 결과 및 논의에서 포함되었는지, 특정 계층 대상 연구라면 선발을 위한 기준으로 무엇을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본다면 국내 심리학에서 사회계층 변인의 현 상태(status in quo)가 더 명확하게 파악될 것이다.

사회계층은 주로 사회학에서 다뤄 왔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제이다. 하지만 구조와 맥락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주관적 경험세계를 구성하는 인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사회계층은 더 이상 혼입변인이나 통제변인으로 격하되어서는 안되며 그 독특한 영향과 의미를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오늘날 심리학자들에 대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며, Rogers가 1940년대부터 일평생 동안 “심리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해온 주장(Kiselica & Robinson, 2001)에 대한 때늦은 응답이기도 하다. 본 연구

결과가 추후 사회계층과 관련된 심리학 연구에 있어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원택, 김병연, 안상훈, 이재열, 최인철 (2014).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서울대 교수 5인의 계층 갈등 대해부. 21세기북스.
- 구재선, 서은국 (2012). 행복은 4년 후 학업성취를 예측한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2), 35-50.
- 김범준 (2016). 사회계층의 심리: 문화적 사고성향(분석적-종합적 사고)과 사회비교성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4), 19-36.
- 김영모 (1979). 한국사회의 직업구조와 그 변동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 23.
- 김영혜, 안현의 (2014). 대학생의 부모-자녀 유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진로결정관계에서 성취압력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657-684.
- 김의철, 박영신, 박동현 (2001).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과 안전효능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7(2), 39-63.
- 김정원, 오경자 (1993).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2(2), 126-141.
- 권순걸 (2017. 5. 3). “제 딸이 ‘짜구려 아파트에 산다’며 왕따를 당합니다”. 인사이트. http://www.insight.co.kr/news_Read.php?ArtNo=103935에서 검색.
- 권태환, 홍두승, 설동훈 (2009). 사회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 박영신, 김의철 (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4(1), 29-53.
-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3), 399-429.
- 박영신, 김정희, 전성숙 (2016). 가족형태별 중년 성인의 노부모 부양인식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455-485.
- 박혜경 (2015). 도덕판단과 처벌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에 대한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6(1), 53-69.
- 박혜숙, 김양곤 (2014). 한국 청소년의 정서, 가정, 또래 및 학교환경 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119-143.
- 배문숙 (2016. 12. 13). 新 계급사회, 국민 5명 중 3명 계층 이동 불가능하다.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213000263>에서 검색.
- 백혜정 (2009).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비행 경험 관계에서의 부모의 지지와 자기통제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4), 37-56.
- 손인서, 김승섭 (2015). 한국의 차별경험과 건강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사회연구, 35(1), 26-57.
- 송보라, 이기학 (2014). 인간생태체계 모형 (Human Ecosystem Model)을 바탕으로 한 진로적응성과 가족환경 요인들 간의 관계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3), 211-232.
- 양국선, 장성숙 (2001).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

- 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27-148.
- 염미경. 사회계층론. 형설출판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3307&cid=44412&categoryId=44412>에서 검색.
- 오은경, 최 미, 최한나 (2016).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 동향: 학술지 및 학위 논문 분석(1993~ 2016. 7). 상담학연구, 17(5), 223-242.
- 이도경, 구자창, 안규영 (2017. 7. 11). [단독] '계층 사다리'는 끊어졌다. 서울 7개 의대 소득분위 최초 분석. 국민일보. <http://v.media.daum.net/v/20170711182700262?rcmd=rn>에서 검색.
- 이병태 (2017. 7. 16). 젊은이들에게 가슴에서 호소합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yungtae.lee.9/posts/10155300133230708>에서 검색.
- 이소은 (2000). 유아의 일상활동과 자기 주도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35-48.
- 이지연, 곽금주 (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51-165.
- 임진영 (2001). 아동의 지능발달과 가정환경 간의 교호적 상호작용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43-64.
- 이철우 (2017). 신사회학 초대 5판. 학지사.
- 이학식, 임지훈 (201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24. 집현재.
- 장성숙 (2003). 한국문화와 현실역동상담의 상담자-내담자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147-160.
- 장유경, 성지현 (2011). 영아, 어머니,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24개월 영아의 표현어휘 습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37-154.
- 정은의, 노안영 (2007).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혼여성 행복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59-82.
- 정진희 (2016). '교차성'은 차별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인가?. 마르크스21, 16, 36-50.
- 조용래, 양상식 (2013). 자연재난 생존자들의 장기적인 심리적 증상들에 대한 예측요인으로서 외상 당시의 해리, 외상 후 부정적 신념 및 사회적 지지 부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4), 955-979.
- 천소라, 김성태 (2017).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research/analysis_view.jsp?pub_no=15185&art_no=2851에서 검색.
- 최승혁, 허태균. (2012). 잘난 사람의 범죄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127-140.
- 최영은, 최미혜, 남민지 (2013).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령 전기 아동의 실행 기능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4), 107-123.
- 최필선, 민인식 (2015).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3), 31-56.
- 통계청 (2016).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1/index.board?bmode=read&aSeq=358202에서 검색.
- 통계청 (2017).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5327&pageNo=1&rowNum=10&navCount=

- 10&currPg=&sTarget=title&sTxt=에서 검색.
- 하영희, 김경연 (2003).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 행동과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간의 인과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17-30.
- 하영희, Carolyn Pope Edwards (2005). 부모와 형제에 대한 초기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애착, 사회경제적 지위 및 조망수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43-57.
-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증상 공존집단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27-144.
- 한완상, 한균자 (2000). 인간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홍두승 (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5(3), 69-87.
- 홍두승, 구해근 (2001). 사회계층·계급론. *다산출판사*.
- 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이재창 (2006).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29-160.
- Adler, N. E. (2009). Health disparities through a psychological lens. *American Psychologist*, 64(8), 663-673.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2000). Resolution on Poverty and Socioeconomic Status. Retrieved from <http://www.apa.org/about/policy/poverty-resolution.aspx>
- Arber, S. (1989). Gender and class inequalities in health: understanding the differentials. *Health inequalities in European countries*, 250-279.
- Bornstein, M. H., Hahn, C. S., Suwalsky, J. T., & Haynes, O. M. (2003). The Hollingshead four-factor index of social status and the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s.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29-81.
- Bourdieu, P. (1985). The social space and the genesis of groups. *Informatio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 24(2), 195-220.
- Bourdieu, P. (1987). What makes a social class? 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existence of groups. *Berkeley Journal of Sociology*, 32, 1-17.
- Boyce, C. J., Brown, G. D. A., & Moore, S. C. (2010). Money and happiness: Rank of income, not income, affects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21(4), 471-475.
- Braveman, P. A., Cubbin, C., Egerter, S., Chideya, S., Marchi, K. S., Metzler, M., & Posner, S. (2005). Socioeconomic status in health research: one size does not fit all. *Jama*, 294(22), 2879-2888.
- Brown, M. T., Fukunaga, C., Umemoto, D., & Wicker, L. (1996). Annual review, 1990-1996: Social class, work, and retirement behavi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9(2), 159-189.
- Chen, E., Matthews, K. A., & Boyce, W. T. (2002).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children's health: How and why do these relationships change with age? *Psychological Bulletin*, 128(2), 295-329.

- Cundiff, J. M., & Matthews, K. A. (2017). Is subjective social status a unique correlate of physical health? A meta-analysis. *Health Psychology, 36*(12), 1109-1125.
- Curhan, K. B., Levine, C. S., Markus, H. R., Kitayama, S., Park, J., Karasawa, M., ... & Ryff, C. D. (2014). Subjective and objective hierarchies and their relations to psychological well-being: A US/Japan compariso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5*(8), 855-864.
- Diemer, M. A., Mistry, R. S., Wadsworth, M. E., López, I., & Reimers, F. (2013). Best practices in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social class in psychological research.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13*(1), 77-113.
- Diemer, M. A., & Ali, S. B. (2009). Integrating social class into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and practice implicat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3), 247-265.
- Domhoff, G. W. (1998). *Who rules America?: Power and politics in the year 2000*. McGraw-Hill Humanities, Social Sciences & World Languages.
- Duncan, G. J., & Magnuson, K. A. (2003). Off with Hollingshead: Socioeconomic resourc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In M. H. Bornstein & R. H. Bradley (Eds.),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pp. 83-106). Mahwah, NJ: Erlbaum.
- Galobardes, B., Shaw, M., Lawlor, D. A., Lynch, J. W., & Smith, G. D. (2006). Indicators of socioeconomic position (part 1).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60*(1), 7-12.
- Goodman, E., Adler, N. E., Kawachi, I., Frazier, A. L., Huang, B., & Colditz, G. A. (2001). Adolescents' perceptions of social status: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new indicator. *Pediatrics, 108*(2), 31-38.
- Hall, E. (2011). Putting the Class into Classical Reception. In Hardwick, L., & Stray, C. (Ed.), *A Companion to Classical Reception* (pp. 386-398). John Wiley & Sons.
- Hardaway, C. R., & McLoyd, V. C. (2009). Escaping poverty and securing middle class status: How race and socioeconomic status shape mobility prospects for African American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2) 242-256.
- Hauser, R. M., & Warren, J. R. 1997. Socioeconomic indexes for occupations: A review, update, and critique. *Sociological Methodology, 27*(1), 177-298.
- Hollingshead, A. B. (1975). *Four factor index of social status*. Retrieved from https://s3.amazonaws.com/academia.edu.documents/30754699/yjs_fall_2011.pdf?AWSAccessKeyId=AKIAIWOWYYGZ2Y53UL3A&Expires=1516109880&Signature=7tzKQrQq%2BuHmsKDHG3h5O3Kzz14%3D&response-content-disposition=inline%3B%20filename%3DAugust_B._Hollingshead_s_Four_Factor_Ind.pdf
- Horberg, E. J., Oveis, C., Keltner, D., & Cohen, A. B. (2009). Disgust and the moralization of pur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6), 963-976.
- Isaac, M. (2006). Class dynamics,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In S. Wheeler (Ed.), *Difference and diversity in counselling: Contemporary psychodynamic perspectives* (pp. 156-170).

- Basingstoke: Palgrave.
- Jetten, J., Iyer, A., Tsivrikos, D., & Young, B. M. (2008). When is individual mobility costly? The role of economic and social identity facto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8(5), 866-879.
- Jones, F. L., & McMillan, J. (2001). Scoring occupational categories for social research: A review of current practice, with Australian example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5(3), 539-563.
- Kiselica, M. S., & Robinson, M. (2001). Bringing advocacy counseling to life: The history, issues, and human dramas of social justice work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9(4), 387-397.
- Kraus, M. W., Adler, N., & Chen, T. D. (2013). Is the association of subjective SES and self-rated health confounded by negative mood? An experimental approach. *Health Psychology*, 32(2), 138-145.
- Kraus, M. W., Côté, S., & Keltner, D. (2010). Social class, contextualism, and empathic accuracy. *Psychological science*, 21(11), 1716-1723.
- Kraus, M. W., & Keltner, D. (2009). Signs of socioeconomic status: A thin-slicing approach. *Psychological science*, 20(1), 99-106.
-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 (2009). Social class, sense of control, and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6), 992-1004.
-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 (2011). Social class as culture: The convergence of resources and rank in the social real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4), 246-250.
- Kraus, M. W., Piff, P. K., Mendoza-Denton, R., Rheinschmidt, M. L., & Keltner, D. (2012). Social class, solipsism, and contextualism: How the rich are different from the poor. *Psychological Review*, 119(3), 546-572.
- Kraus, M. W., Rheinschmidt, M. L., & Piff, P. K. (2012). The intersection of resources and rank: Signaling social class in face-to-face encounters. Facing social class: *How societal rank influences interaction*, 152-172.
- Kraus, M. W., & Stephens, N. M. (2012). A road map for an emerging psychology of social clas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6(9), 642-656.
- Krieger, N., Williams, D. R., & Moss, N. E. (1997). Measuring social class in US public health research: Concepts, methodologies, and guideline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18(1), 341-378.
- Lareau, A. (2011). *Unequal childhoods: Class, race, and family life*. Univ of California Press.
- Lau M. Y., Cho R. J., Chang J. J., & Huang J. (2013). Measurement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social class research: A call for theorization and study. In Liu W. M. (Ed.), *The oxford handbook of social class in counseling* (pp. 59-78).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Liu, W. M. (2010). Problems in Social Class Measurement and Research. In Liu W. M., *Social class and classism in the helping professions: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pp. 46-74). Sage Publications.
- Liu, W. M. (2012). Developing a social class and

- classism consciousness. In Liu W. M. (Ed.), *The Oxford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 326-345). New York, NY, US: Oxford University Press.
- Liu, W. M. (2013). Introduction to social class and classism in counseling psychology. In Liu W. M. (Ed.), *The Oxford handbook of social class in counseling* (pp. 3-20). New York, NY, US: Oxford University Press.
- Liu, W. M., Ali, S. B., Soleck, G., Hopps, J., Dunston, K., & Pickett, T. (2004). Using social clas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3-18.
- Liu, W. M., Soleck, G., Hopps, J., Dunston, K., & Pickett, T. (2004). A new framework to understand social class in counseling: The social class worldview model and modern classism theory.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2(2), 95-122.
- Loignon, A. C., & Woehr, D. J. (2018). Social class in the organizational sciences: a conceptual integration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Management*, 44(1), 61-88.
- Lorant, V., Deliege, D., Eaton, W., Robert, A., Philippot, P., & Ansseau, M. (2003).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depression: A meta-analysi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57(2), 98-112.
- Lott, B. (2002). Cognitive and behavioral distancing from the poor. *American Psychologist*, 57(2), 100-110.
- Lucal, B. (1994). Class Stratification in Introductory Textbooks: Relational or Distributional Models?. *Teaching Sociology*, 22(2), 139-150.
- Lynch, J. W., Kaplan, G. A., Cohen, R. D., Tuomilehto, J., & Salonen, J. T. (1996). Do cardiovascular risk factors explain the rel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risk of all-cause mortality, and cardiovascular mortality, and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44(10), 934-942.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arx, K., & Engels, F. (1973).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In Karl Marx, *The revolutions of 1848: Political writings* (Vol. 1, pp. 62-98). Harmondsworth, United Kingdom: Penguin. (Original work published 1848).
- Miranda, J., Chung, J. Y., Green, B. L., Krupnick, J., Siddique, J., Revicki, D. A., & Belin, T. (2003). Treating depression in predominantly lowincome young minority women: A randomized trial.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90(1), 57-65.
- Mistry, R. S., Brown, C. S., White, E. S., Chow, K. A., & Gillen-O'Neel, C. (2015). Elementary school children's reasoning about social class: A mixed methods study. *Child development*, 86(5), 1653-1671.
- Monsivais, P., & Drewnowski, A. (2009). Lower-energy-density diets are associated with higher monetary costs per kilocalorie and are consumed by women of higher socioeconomic status.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09(5), 814-822.
- Oakes, J. M., & Rossi, P. H. (2003). The measurement of SES in health research: current practice and steps toward a new

- approach. *Social science & medicine*, 56(4), 769-784.
- Ostrove, J. M., Adler, N. E., Kuppermann, M., & Washington, A. E. (2000). Objective and subjective assessment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their relationship to self-rated health in an ethnically diverse sample of pregnant women. *Health Psychology*, 19(6), 613-618.
- Park, J., Kitayama, S., Markus, H. R., Coe, C. L., Miyamoto, Y., Karasawa, M., ... & Ryff, C. D. (2013). Social status and anger expression: the cultural moderation hypothesis. *Emotion*, 13(6), 1122.
- Piff, P. K., Kraus, M. W., Côté, S., Cheng, B. H., & Keltner, D. (2010). Having less, giving more: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5), 771-784.
- Pingle, M., & Mitchell, M. (2002). What motivates positional concerns for incom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3(1), 127-148.
- Pope, J. F., & Arthur, N. (2009). Socioeconomic status and class: A challenge for the practice of psychology in Canada. *Canadian Psychology*, 50(2), 55-65.
- Pope-Davis, D. B., & Coleman, H. L. (2001). *The intersection of race, class, and gender in multicultural counseling*. Sage.
- Ranchor, A. V., Bouma, J., & Sanderman, R. (1996). Vulnerability and social class: Differential patterns of personality and social support over the social class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2), 229-237.
- Ross, C. E., & Wu, C. (1995). The links between education and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9-745.
- Rubin, M., Denson, N., Kilpatrick, S., Matthews, K. E., Stehlik, T., & Zyngier, D. (2014). "I am working-class": Subjective self-definition as a missing measure of social class and socioeconomic status in higher education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43(4), 196-200.
- Saegert, S. C., Adler, N. E., Bullock, H. E., Cauce, A. M., Liu, W. M., & Wyche, K. F. (2007). Report of the APA Task Force on socioeconomic statu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Retrieved from http://gsappweb.rutgers.edu/cstudents/readings/Summer/Kelly_Diversity/APA%202006%20task%20force%20on%20SES.pdf
- Santiago, C. D., Kaltman, S., & Miranda, J. (2013). Poverty and Mental Health: How Do Low Income Adults and Children Fare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9(2), 115-126.
- Shanks, T. R. W., & Destin, M. (2009). Parental expectations and educational outcomes for young African American adults: Do household assets matter? *Race and Social Problems*, 1(1), 27-35.
- Shavers, V. L. (2007). Measurement of socioeconomic status in health disparities research. *Journal of the national medical association*, 99(9), 1013-1023.
- Sherry, A., Adelman, A., Farwell, L., & Linton, B. (2013). The impact of social class on parenting and attachment. *The Oxford Handbook of Social Class in Counseling*, 1, 275.
- Singh-Manoux, A., Adler, N. E., & Marmot, M. G. (2003). Subjective social status: Its

- determinants and its association with measures of ill-health in the Whitehall II study. *Social Science & Medicine*, 56, 1321-1333.
- Singh-Manoux, A., Marmot, M. G., & Adler, N. E. (2005). Does subjective social status predict health and change in health status better than objective status? *Psychosomatic Medicine*, 67, 855-861.
- Snibbe, A. C., & Markus, H. R. (2005).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educational attainment, agency, and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4), 703-720.
- Stephens, N. M., Brannon, T. N., Markus, H. R., & Nelson, J. E. (2015). Feeling at home in college: Fortifying school relevant selves to reduce social class disparities in higher education.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9(1), 1-24.
- Stephens, N. M., Fryberg, S. A., Markus, H. R., Johnson, C. S., & Covarrubias, R. (2012). Unseen disadvantage: How American universities' focus on independence undermines the academic performance of 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6), 1178-1197.
- Stephens, N. M., Markus, H. R., & Fryberg, S. A. (2012). Social class disparities in health and education: Reducing inequality by applying a sociocultural self model of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119(4), 723-744.
- Stephens, N. M., Markus, H. R., & Townsend, S. S. (2007). Choice as an act of meaning: the case of social cla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5), 814-830.
- Stephens, N. M., & Townsend, S. S. (2013). Rank is not enough: Why we need a sociocultural perspective to understand social class. *Psychological Inquiry*, 24(2), 126-130.
- Stephens, N. M., Townsend, S. S. M., Markus, H. R., & Phillips, L. T. (2012). A cultural mismatch: Independent cultural norms produce greater increases in cortisol and more negative emotions among 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6), 1389-1393.
- Varnum, M. E., & Kitayama, S. (2017). The neuroscience of social clas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 Weber, M. (1958). *The Protestant work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T. Parsons, Trans.). New York, NY: Scribner.
- Williams, D. R. (1990).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health: A review and redirec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81-99.
- Wohlfarth, T. (1997). Socioeconomic inequality and psychopathology: Are socioeconomic status and social class interchangeable?. *Social Science & Medicine*, 45(3), 399-410.
- Wright, E. O. (1979). *Class structure and income determination (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 Wright, E. O. (1997). *Class counts: Comparative studies in class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eung, W. J., & Conley, D. (2008). The Black-White achievement gap and family wealth. *Child Development*, 79(2), 303-324.

논문 투고일 : 2017. 09. 25

1 차 심사일 : 2017. 09. 27

게재 확정일 : 2018. 02. 27

Revisiting the Social Class: Focusing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in Psychology

Sang-Wu Pyu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ocial class has become a major focus of research in the field of Western psychology due to its critical impact on human life. The Korean scholarship in psychology, however, has paid very little attention to the issue of social class despite the deepening of social stratification in the country; and the concepts and measurement they used were typically borrowed from sociology. In this study, I discussed what social class means and how it should be measured in order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concept and its related issues. To this end, I examined a variety of theoretical backgrounds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class and the concept of socioeconomic status (SES) —a term commonly used as a synonym for social class. This study divided the method of measuring social class into objective social class and subjective social class, and outlin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pproach and their main indicators. Finally, I assessed the recent trend in the Korean psychology on social class measurement. Among the 23 studies I have found, 65.2% used the objective social class index; and education was the objective indicator they most frequently employed, followed by income and occupation. Social stratification identity was used in all seven studies that applied subjective social class. And seven different words to describe social class was found. Based on these results, I concluded that there should be a call for more direct research on social class variables. In addition, I suggest that ‘social class’, instead of socioeconomic status, should be used as a preferred term in the future studies and propose a few notes on how to use the objective indicators and subjective social class measurement.

Key words : social class, socioeconomic status(SES), social class measurement, objective social class, subjective social class